

나주·강진 화제 전시 2題

나주와 강진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나주에서는 광복 69주년을 맞아 국내 유명 만화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린 만화기획전이 열리고, 강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통해 젊은 현대미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위안부 할머니, 짓밟혀도 꺾이지 않는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 9일~9월 14일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출품작
이현세·박재동·김신 등 만화가 15명 참여



김신 작 '그래도 희망을'



차성진 작 '그날이 오면'



김형배 작 '영혼의 승화'

일본의 총칼에 처참하게 쓰러진 한국 소녀. 하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고 남아 노란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화가 김형배씨의 '영혼의 승화' 중)
그들의 꺾이지 않았던 의지는 희망으로 승화됐다. 결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군국주의를 나타내는 일본 무장을 밟고 일어서고야만한다. (만화가 이현세씨의 '오리발 나뽀도' 중)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광복 69주년을 맞아 한국만화연합회 공동으로 9일~9월14일 기념관 1층 체험전시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전을 연다.
짓밟혀도 쓰러지지 않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꽃과 같았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지단했던 삶이 박재동, 이현세, 조관제, 고경일, 김신, 김정기, 신지수, 차성진 등 만화가 15명의 카툰과 스토리 작품에 담겼다.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꽃처럼 승화시켜

나가는 피해 여성들의 여정을 보고 있으면 눈시울을 붉히게 된다.
전시 작품들은 앞서 지난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이 작품들은 일본인들의 취소 탄원서로 전시가 무산될 뻔했었다. 하지만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치욕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식민지 여성의 아픔에 공감했고 일본 측의 반성과 배상을 촉구했다.
이번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일본 측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여성의 문제까지 아우른다.
작품과 함께 전시장 주변에 설치된 '소원줄'에는 관람객들의 소감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이 기록될 예정이다.
문의 061-334-5393.



국악·연극·댄스랑 ... 아리랑

콘서트 '아리랑 우리랑' ... 27일 광산문화회관
아이리아·박철민 등 참여 ... 무료 관람 접수중

색다른 '아리랑'을 만난다.
광주 광산구가 컨템포러리 아리랑 콘서트 '아리랑 우리랑' 공연을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회관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광산문화회관이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가 있는 날' 8월 특집으로 준비한 공연이다.
'아리랑 우리랑'은 퓨전국악, 연극, 영상, 합창, 댄스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작품.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아 단원과 광주 출신 영화배우 박철민, 공개모집한 아리랑 시민합창단과 청소년 서플댄스단 5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총감독 및 연출은 아이리아 강혜경 대표가 맡았으며 배우 박철민의 구수한

연기, 시민 출연진의 특색 뒤는 무대가 어우러진다.
공연 무료관람 신청(선착순 250명 한정)은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uardian08@korea.kr)로 보내면 된다.
공연이 끝나고 재미와 감동만큼 자발적으로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또 소외계층 150명을 별도 초대한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애니'로 만나는 한국단편문학

광주극장 12일 '메밀꽃, 운수 좋은 날...' 시사회

'김유정·현진건·이효석, 한국 단편문학을 만나자.'
국내 처음으로 한국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유료 시사회를 갖는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2011년 첫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2011)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재훈·한혜진 감독의 공동 작품이다.

원작은 장동백이 허생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 처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갔으나 수년째 머슴생활만 하는 남자의 이야기인 김유정의 '봄봄', 가난한 인력거꾼 김철치의 신산한 일상을 보여주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다.
시사회 후에는 안재훈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정식 개봉은 21일.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작 지원

'뽕뽕뽕뽕 구조대 미션...' 극장서 만나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이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주)빅스크리에이티브(대표 방형우)의 '극장판 뽕뽕뽕 구조대 미션 : 동동이를 구하라!'가 7일 개봉, 올여름 극장에서 어린이들과 만난다.
'극장판 뽕뽕뽕 구조대 미션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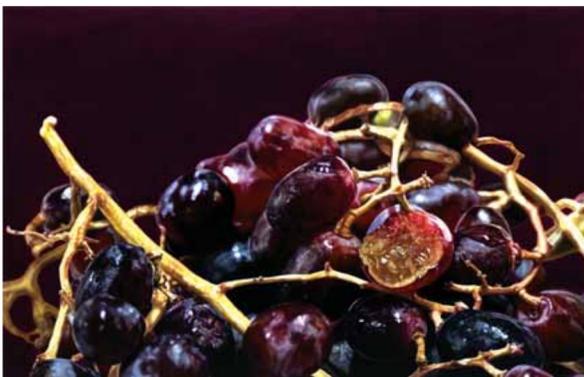
동이를 구하라!'는 KBS2에서 시즌2까지 방영되며 큰 인기를 모은 TV 애니메이션 '뽕뽕뽕 구조대'를 극장판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마카오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에서 TV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 캐릭터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김경민기자 kiki@kwangju.co.kr

자본주의 문제 되짚다

강진아트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8일~9월 21일

빌딩들로 꽂힌 도시 공간, 매표장의 쓰레기들,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끼어드는 자본의 문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작품전 '집적과 잉여 사이'전이 8일~9월21일 강진아트홀 전시실과 회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은행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문화 소외지역을 돌며 선보이는 전시다. 올해는 모두 7곳에서 열리며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강진아트홀에서

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열린다.
전시는 모두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섹션A '쌓다'에는 고산금의 '민법' 등 11점, 섹션B '증폭하다'에는 박희섭의 'After Nature' 등 10점, 섹션C '넘치다'에는 윤갑용의 '바람-001.002' 등 12점이 전시된다.
대부분 40대 전후 작가들의 작품으로 자본주의라는 사회 제도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작가들의 시각적 문제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문제의식과 접



황순일 작 'Take one'

근법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현실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한다.
문의 061-430-3972. /김경민기자 ki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